

# 절도 있는 일본인, 외교의 나카소네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족적을 남긴 인물 중,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前) 총리는 1947년 정계 입문 이래 중의원 20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2003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동서냉전 막바지 6년간 총리로 재임하며 여러 업적을 남겼으며 총리 시절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또한 총리에 오른 직후인 1983년 초에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한국을 우선으로 공식 방문한 최초의 일본 총리였다.

1983년 연초에 필자가 재직하던 호텔은 일본의 나카소네 전 총리 일행을 맞이하게 됐다. 그의 방한은 일본의 현직 수상의 최초 공식적 한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1983년 1월 11일 서울에 도착한 나카소네 전 총리는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게양된 호텔에 들어서며 “한국적인 청기와와 호텔 건물의 색이 아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집권 후 첫 외교 나들이로 우리나라를 찾은 나카소네 전 총리는 ‘외교의 나카소네’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능동적이고 능란한 외교술을 가진 정치가였다. 그는 1박 2일의 짧은 체류기간에 한국 전통음식을 즐겨먹는 의외의 면모를 보였다.

도착한 다음 날에는 국무총리가 주최한 오찬회에서 순 한국식 궁중요리를 들고, 이어 대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90년대에는 동양의 젓가락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인 특유의 절도 있는 생활이 몸에 배어 새벽 일찍 일어나 시간을 아껴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86년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또 한 번 우리나라를 찾았다. 첫 방한이 집권 초기의 전격적인 결정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의 방한 역시 집권 후기의 의외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아시안게임을 경축하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의 초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는 두 번째 방한 때도 나름대로 분주한 29시간을 보냈다. ‘일본의 국제화’를 제창하는 만큼 짧은 방문 중에도 술선수범으로 다양한 국제화된 행보를 보였다. 방한 첫 날,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에게 손을 흔드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튿날에는 청와대에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내·외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또 다시 아시안 게임 선수촌에 들러 일본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런 빈틈없는 일정을 통해 알 수 있듯 나카소네 전 총리는 전형적인 ‘부지런한 일본인’이었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쁜 스케줄을 짊어지느라 정력으로 착오 없이 수행해 나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본에서 공수돼 온 자국의 조간신문을 읽는 그의 모습에서 외유 중에도 끊임없이 국내 정세에 신경 쓰는 국가원수의 막중한 책무를 엿볼 수 있었다.

호텔에 묵는 동안 별다른 주문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폐를 끼치지도 않는 등 깔끔한 성품을 보여준 나카소네 전 총리는 호텔리어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고객이기도 했지만 호텔리어들은 이 점잖은 국가원수 때문에 혼비백산을 경험하기도 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웬 남자가 튀어나와 손살같이 수상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닌가! 미처 말할 틈도 없이 나카소네 전 총리 앞에 선 그

남자는 느닷없이 “수고하십니다!” 소리를 지르며 꾸벅 인사를 했다. 일본인이었던 그는 자기나라의 국가원수를 자신이 묵고 있던 한국의 호텔에서 만나게 되자 그런 돌발 행동을 했던 것이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호텔을 떠나며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서비스에 만족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인사를 남겼다. 당시 그는 깨끗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단정한 용모, 근엄한 표정을 지었는데 마치 단호한 옛 사무라이를 떠올리게 했다. 한편론 고승(高僧)의 자태를 연상할 수도 있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재임기간 중 2회에 걸쳐 같은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에 속한다. 총리 취임 후 일본의 역대 지도자

들과는 달리 한국을 최초의 방문국으로 선택했던 나카소네 전 총리, 그의 두 번째 방한도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축하하기 위한 우호적인 것이었다. 한일관계처럼 미묘하고 풀 수 없는 난제도 없었지만 일본 수상이 방한 중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후지오 망언’에 대해 깊이 사과한 일은 고무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있지만 그의 행동은 한일관계에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제 그는 20선, 57년 간 의정생활을 명예롭게 졸업한 영원한 자유인으로, 한때 유능한 국가 지도자로서 기억되고 있다.

**남재철**  
(주)아이앤비컨설팅 대표/대리대 교수

남재철 대표는 20년 간 국내 최고 품격을 자랑하는 호스피털리티 서비스업에서 경험한 VIP 환대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체 대상으로 행사 및 VIP 의전서비스 전문 대한민국 1호 강사로 왕성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